합격 취직 승진에 앞서 선택을 확인하라

(살전1:1~10)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3.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4.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합격 취직 승진에 앞서 선택을 확인하라>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합격하기 위해서 애쓰고 취직하고 승진하기 위해서 애쓰기 전에 먼저 선택을 확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학에 합격하는 것도 결국은 선택을 받는 겁니다.
또한, 취직하는 것도 승진하는 것도 다 선택받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 살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었다고 결혼하게 될 때, 그 결혼도 이성에 의해서 사실 선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사는 사실은 선택받음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에 합격했다, 선택받은 거죠.
그리고 서울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삼성처럼 정말 들어가기만 하면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대기업에 취직한 것, 선택받은 겁니다.
그 입사동기들 중에서도 고속승진을 해서 젊은 나이에 사장까지 되었습니다, 선택받은 거죠.
아, 가슴이 설레게 하는 그런 삶의 여정입니다.
근데 보면 다~ 선택을 받는 거예요.
아름답고 훌륭한 아내와 결혼하는 것, 선택받은 거죠.
이뿐이겠습니까? 고등고시 외무고시 다 선택받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선택받아요, 교회를 세우신 처음 목사님이 은퇴를 하게 되면 후임 목사를 찾는데, 내로라하는 젊은 목사님들이 후보에 올라가면 그중에서 선택받아서 청빙되어 갑니다.

아,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 명예스러운 일이죠.
또, 개척을 하는 것도 사실은 성도들에 의해 목사님이 선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난 이 목사님이 좋아, 그래서 이 교회로 갈 거야' 선택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받기 위해서, 더 좋은 선택, 더 높은 곳으로의 선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택받는 일은 너무 좋고 기쁜 일인데, 그 선택을 받기 위해서 선택받을만한 조건을 갖추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선택을 받는다는 이 사실,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서부터 시작된 선민의 역사가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사건을 통한 선택의 과정으로 바뀌면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한 신앙적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좀 이상한 선택이에요.
과정이 거꾸로 돼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서울대학에 선택받아 합격되는 경우와 삼성에 취직하게 되는 그런 선택과 비교하게 될 때, 너무 달라요.
그리고 과정이 거꾸로 돼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실 때는 서울대학에 선택받을만한 실력을 키우는 것과 같은 그런 실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어요, 삼성에 선택받을 만큼 그렇게 돈 버는 일에 타고난 재주를 발휘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우리에게서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선택하신 시점이 태초,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 정도 되면 선택할만하지 않습니까? 라고 나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우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고, 선택받기 위한 어떤 노력과 수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주권자 되심에 근거된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꾸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서울대학에 선택을 받으려면 선택받을만한 실력

을 내가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서울대 합격한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실력이 남다르다는 말입니다.
또, 삼성같이 훌륭한 기업에 취직이 되는 것도 뭔가 삼성에서 필요한 능력적 소질이나 자질이 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들이라서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은 선택받을 때는 뭐가 다른지 몰라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나 선택을 받고난 뒤에 완전히 남다른 차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그 어느 능력자, 그 어느 실력자, 그 어느 부자, 그 어느 고관대작과도 다른 완전히 차별되는 선택받았음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을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보여 져야 될 조건 같은 것들이 선택받은 다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3 학생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너 이제부터 서울대학 학생이다'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짜 실력은 서울대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서울대에 무작위 랜덤으로 선택되어 갔다가 졸업할 때는 완전히 서울대생의 실력이 갖춰져 버리는 겁니다.

아,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조건 선택을 받아 서울대에 입학이 되면 서울대생다운 실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해서도 서울대 졸업생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있잖습니까, 거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죠, 훌륭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요, 그건 인정해줘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을만한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들어갔는데…
이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들어오라고 해서 그냥 삼성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삼성에 들어가서 어떤 회사의 직원보다 훌륭한 능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선택받고 나니까 선택받은 것의 증거로.
이게 기독교의 예수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서울대에 합격해도 좋고 삼성 같은 대기업에 취직해서 초고속으로 승진해서 사장 되는 것도 좋은데, 이런 모든 세상적인 선택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선택받음이 대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선택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 서울대가 좋고 삼성이 좋고 승진이 좋아 보이느냐?
아직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증거가 내 스스로에게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선택받음이 그렇게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는 네가 선택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준비해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의 증거가 뭔지를 확인하고 그게 확인되면 내가 선택받았음이 확실해지고 선민에게 주시는 복지,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바울이 '내가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동시대인뿐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스스로 말하고 교회 안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택하지 않았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택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생활 하고 예배드리러 온다고 다 택하신 게 아닙니다.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그 누구에 대해서도 택하지 않았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정말 증오가 타당하게 여겨지는 가정파괴범,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선택받지 않았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사형장에서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까지 두고 봐야지 아는 일입니다.
직전까지 선택받은 증거를 봐야 돼요, 증거가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사도바울이 사울 시절에 교회를 잔해할 때, 멧돼지가 포도원에 들어가 포도를 다 망가뜨리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증오가 물이 올라서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고 박해를 할 때, 누가 그 사울이 사도바울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선택을 안 받았는지는.
그러나 선택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교인들 중에서도 선택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것은 이 증거가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인들 중에서도 그 증거가 지금 안 나타나더라도 이 사람이 선택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증거가 내가 죽은 다음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건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라고 말하게 되는 이 배경이 뭡니까?

데살로니가교회는 2차 전도여행 때 세웠거든요.
2차 전도여행 때 유럽에서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빌립보교회고,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반도 북부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교회에요.
빌립보에서 탄압이 있어서 데살로니가로 옮겼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들의 탄압이 극심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지 못하고 베뢰아로 쫓겨 오는데, 유대인들이 베뢰아까지 쫓아와서 사도바울을 박해하니까 거기서도 견디지 못하고 아덴으로 도망합니다.
근데 아테네에 와가지고 사도바울이 가만 생각하니까, 데살로니가는 박해가 너무 심한데 자기가 복음을 충분히 그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전할 만한 시간적인 기간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려고 하는데도 사정이 허락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디모데를 대신 보내는 거예요.

참으로 사도바울이 복 받은 사람인 것은, 디모데와 실라처럼 이렇게 자기 대신 보내도 자기가 간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복음에 헌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 참 대단한 복이죠?
어쨌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바울과 재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놓고 자기는 고린도로 갔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소식을 갖고 온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가져온 소식은, '데살로니가는 여전히 박해가 심하다', 빌립보서에 나왔듯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박해가 심하고 가난이 심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교회니까, 박해와 환란이 심한데 이상한 것은 '그 박해 속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전한 것도 아닌데,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박해와 환란을 뚫고 나가면서 하늘에서 선민들에게 약속된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더라!' 하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감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한 거예요, '내가 안다, 너희가 이렇게 환란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받아들인 선민들에게 허락된 신령한 복,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나와요, 이렇게 신령한 복을 그 환란 가운데서도 누리고 있는 것을 보니까, 6절에 보면 성령에 의한 기쁨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걸 보니 확실히 너희가 선택을 받은 자임을 확증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러므로 그 증거가 뭐냐 하면, 10절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활동한다는 것이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활동 수고 인내라는 말이 붙으니까 괜히 힘들고 애써야 할 것 같지만 사실 복지라는 얘기에요.
사도바울이 염려가 될 정도로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 이들이 복지를 살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적용시켜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선민으로서 선택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처음에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꺼내서 주는 게 믿음입니다.
왜 마음심장을 꺼내서 줍니까?
예를 들어 내 마음심장을 꺼내서 애인에게 주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애인으로 인해 내 마음속에 비어있는 부분이 채워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애인과 사랑이 잘 이루어질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고 얘기하지요.
돈에 마음심장을 주는 이유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돈으로 마음을 채우면 내가 기쁘고 행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복음을 통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돈이 없고 핍박 가운데 있고 환란 가운데 있고, 힘들고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미워하지만 결국 내 마음의 기쁨은 저 사람들이 날 인정해준다고 기뻐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업을 잘해서 돈이 많아진다고 기쁘고 만족스러워지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나님만으로 난 만족할 수 있다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마음을 다 회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 하면, 내가 그동안 돈을 많이 벌면 기쁠 거라고 생각했던 믿음이 죄라는 걸 알게 되고, 이로 인해 내 마음이 더러워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마음이 자식을 잘 키우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게 믿음이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더럽혀지고 얼룩졌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향합니까? 십자가로 향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됐었던 이유가 뭐냐?
그동안 내 마음이 빗나가버렸다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죄라고 하는 말이 빗나갔다는 뜻이잖아요.
행복할 줄로 알고 기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내 마음을 줬던 그 대상들이 다 빗나간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러워져서 주님께서 저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고, 피를 흘려서 그 보혈로 나를 깨끗케 해주시려고 죽으셨다.
그렇게 그 믿음을 오늘 받아들였는데 내일이 되니 또 돈이 마음에 땅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또, 자식을 잘 키우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얼른 자식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아니야, 나는 일단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행복은 끝이 나고 완벽해지는 거야'
그렇게 계속 십자가로 죽으면서 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활동이고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생활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죽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이렇게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 기도하는 시간들이 끝나고 밖에 나와 사람들을 대할 때,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사람을 대할지언정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으로부터 내게 유익이 되는 걸 원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내게 만족을 줄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의 필요만 생각하게 되니까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과 주님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느껴지는 주님, 어떻습니까?
우린 아직 육체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같이 거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소망의 인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보류되지 않는 소망, 보류되지 않고 연기되지 않고 지연되지 않는 주님에 대한 보고픔, 이게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선택받은 사람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당장 하나님 때문에 기뻐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 말고 어떤 것을 끌어들여도 궁극적으로 기쁨과 행복은 주어지지 않아, 근데 죄의 습성 때문에 자꾸 이 세상 것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라고 알고 십자가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수고고, 이렇게 십자가로 세상 것에 대해 자꾸 죽을 때, 사람을 만나면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의 관심과 필요만이 나의 관심이 되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루 빨리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살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 소망이 선택받음의 증거인데, 아직도 주님을 신령한 몸을 입고 만나는 상태가 되

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교회나 빌립보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경험해볼 수 없는 복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끊이지 않는 박해와 환란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어디 감히 그런 단어가 튀어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바울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까지 읽다보면 이 소식이 온 마케도니아 지방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 소식을 알려줄 때 사도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불안했거든요, 그렇게 극심한, 자기가 그 환란을 당해봤으니까, 그 환란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데, 내가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 붙들어주지도 못했는데, 대체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해서 뚜껑을 열어봤는데 아이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소망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하늘을 느끼면서 그 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웃에게 전해서 그 십자가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렇게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기쁨과 복은 하늘로부터만 오는 거라는 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아! 제가 복 받는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사도바울의 말을 빌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누가 선택을 안 받았는가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증거가 나타날 때 선택받음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 선택받음의 확인을 통해서 확연히 질이 다른 복지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